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NEWS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ko.wfp.org

2013년 1월
통권 1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기아퇴치를 위한
UN 최전방 기관으로서
세계의 가장 위험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Contents

03

WFP 홍보대사 배우 장동건의 편지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배고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04

DRC 난민촌 상황 및 홍육진 씨 편지

- **첫방문 SBS** 에 소개된 콩고민주공화국(DRC) 난민 및 WFP 긴급구호 현황
- 실낱 같은 희망을 현실로

06

전세계 기아현황

Hunger Map, Hunger Fact 소개

08

전세계의 식량위기

터기 적신살사, 사헬지역, 우간다, 북한, 쿠바

10

WFP NEWS, 김현미 후원자의 이야기

WFP 한국사무실 이전, WFP 사무차장 한국방문, KDB 콩고봉사방문

11

후원 안내

후원방법 안내, 기부금 영수증 안내, 소득공제혜택 안내



United Nations World Food Programme 유엔세계식량계획

ko.wfp.org

기아현장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큰 인도주의 기구 WFP

전 세계적인 기아퇴치활동

매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70여 개의 최빈국 9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지원합니다. 기아퇴치를 위해 일하는 UN 최전방 기관으로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세계의 가장 위험하고 소외된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전세계 기아퇴치를 위한 5가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1 긴급 상황 시 생명을 살리고, 생계를 지원한다.
- 2 심각한 기아 발생을 막고, 재해 대비(또는 완화) 방안을 세운다.
- 3 분쟁이나 재해 발생 직후 또는 복구 과정에서 생명을 지키고, 상실된 생활 터전을 복구한다.
- 4 만성기아와 영양실조를 줄인다.
- 5 해당 국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수원국의 직접 책임 이양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식량 현지 구입을 실현한다.

활동국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전세계 92개국에 사무소가 있으며 74개 국에서 식량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기준)

Cover Story



저희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홍보대사인 배우 장동건씨가 WFP와 함께 하는 **첫방문 SBS** 프로그램을 위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발행

발행일 2013년 01월 10일
발행인 모하메드 살레힌
발행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고유번호 101-84-06554
전화 02. 722. 9579 팩스 02. 722. 7005
이메일 wfp.korea@wfp.org
웹페이지 <http://ko.wfp.org>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wfp>
블로그 <http://blog.naver.com/wfpkore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WFPKorea>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관(152-1동) 301호 151-742

디자인 기획·제작 NOTSUN
웹페이지 <http://www.notsun.com>
전화 1566.2329
DESIGN 이영아, 김효지
인쇄 NOTSUN Partners

후원

후원문의 02. 722. 9579
이메일 wfp.korea@wfp.org
홈페이지 <http://ko.wfp.org>
후원계좌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195-10-010956

일시 후원인 경우에는 상기 WFP후원계좌로 입금 하시고 입금 시 성함과 생년월일을 같이 기입하신 후 WFP한국사무소(02-722-9579)에 송금내용을 전화 혹은 WFP 이메일(wfp.korea@wfp.org)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배고픈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후원자 님,
WFP 홍보대사 배우 장동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우 김민중씨와 함께 지난 10월28일, 콩고민주공화국 북 키부주의 주도(州道) 고마에서 주민들과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평화를 꿈꿀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분쟁이 악화되는 바람에 제가 머물렀던 고마는 결국 반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반군이 다시 철수하여 약간의 안정을 찾았다고 하나 여전히 난민들은 안전과 생계를 심각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사는 콩고 주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없는 콩고의 많은 어린이들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어린이들은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요?
‘오늘은 무엇을 하고 뛰어 놀까’라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만을 안고 사는 콩고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려 있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콩고 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콩고 어린이들에게 ‘배고픔’은 현재 받고 있는 고통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식량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숨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콩고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전세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겐 친구들과 함께 밥 한끼를 먹거나 차 한잔을 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 절박한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꾸게 하는 커다란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손길이 기아 없는 세상,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TV SBS 에 소개된 콩고민주공화국(DRC) 난민 및 WFP 긴급구호 현황

2012년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영양 실조 상태 악화 심각

2012년 초 이후로 콩고민주공화국(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DRC)에는 새로운 폭력 사태들로 인해 5개 주에 걸쳐 내국 난민(내전이나 기아로 인해 고향을 떠나 국내의 다른 지방을 떠도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만 1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식량 원조를 받았으며 앞으로 이러한 식량 원조의 필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DRC는 인간의 행복을 측정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지수에서 전세계 조사대상 187개국 중 맨 밑바닥인 187위를 차지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에서 평가하는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가 그것이다. 2012년 WFP와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이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백 3십만 명에 이르는 DRC 주민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3백만 명은 내전이 끊이지 않는 DRC 동부 오리엔탈주(州)의 남북부 키부, 카탕가, 오리엔탈, 마니에마 등의 다섯 개 지방에 살고 있다. 이러한 다섯 개 지방의 식량 안보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추세다. 특히 내국 난민의 식량 안보 상황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내전으로 인한 폭력은 농산물 수확기 및 모내기에 맞물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또한 커다란 문제이다. 2010년 UNICEF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DRC 총 11개 주(州) 중 6개 주의 영양실조 상황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DRC 동부 다섯 개 주에서 이러한 영양실조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DRC의 이러한 영양실조 사태는 다양

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내전으로 인한 내국 난민의 발생과 식수나 기본적인 보건으로 시설의 부족, 낮은 농업 생산량, 도로와 같은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과 만성적인 가난이 그 이유일 것이다. 특히 DRC 동부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전과 폭력 사태는 이 곳 주민들의 농업을 방해하고, 이들이 살아갈 곳을 잃게 하고 있다.

북부 키부 지방에서 새로이 힘을 얻고 있는 반군 세력의 등장과 그 외의 무장 세력들 간의 분쟁은 이 지역 2012년 4분기 식량 안보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이러한 폭력 사태를 피해 아직 고향을 떠나지 않은 주민들도 경작지로 나가거나 낚시를 하고 시장에 물건을 팔러 가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방해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은 수도인 킌샤사를 비롯한 DRC 전역에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UN조사에 따르면 2012년 중반까지 발생한 난민의 수는 2백 4십만 명에 달하며, 이는 주로 남북부 키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2011년 말 새로운 반군 세력이 등장한 이후로 북부 카탕가 지역에서만 2십만 명의 새로운 난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식량 안보 및 난민 발생의 위험은 동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DRC 서부 지역에서도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종간의 분쟁과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DRC 주민 전체가 국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DRC 주민들은 교육과 건강에의 기본적인 권리를 잃은 지 오래다. 내전은 특히 농촌지역의 병원과 의료 시설을 파괴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료 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HIV/AIDS는 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정보를 얻기 힘든 내국 난민들 사이에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2012년에는 에볼라, 콜레라 및 홍역과 같은 유행병이 창궐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0일 목요일, 콩고의 반군이 북키부 주의 주도인 고마(Goma)시 지역을 점령하였다. 다행히 무장 반군 세력 M23은 12월 3일을 기해 Goma시에서 철수, Goma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했으나 주변 지역의 정치적, 인종적 분쟁 및 인권 다름 근본적인 원인들은 해결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고마에서만 14만 명의 난민들이 더욱 고통 받고 있다. 현재 WFP가 벌이고 있는 현지 사업에는 북키부 주의 치안상황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FP는 신속하게 식량안보 분석평가를 진행

했고, 난민을 파악, 등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분쟁이 다시 불거진 지 불과 3일째 되는 11월 23일부터 WFP는 7만 명에 가까운 내국 난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에 착수하였다.

WFP는 고마에 대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구호 활동을 돕는 직원들이 고마에 배치되고 있으며, 콩고 및 이웃 나라들로부터 대규모 난민 이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주요 운송지역에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WFP는 또한 우간다와 르완다의 구호활동에 필요한 수송 수단과 이동식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재난으로 영향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중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마련 중이다. WFP는 최근에 발생한 다수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국제사회와 개인의 관심어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향후 6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이 매우 절실하다. WFP는 이 지역의 위기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현재 1억 3천만 달러를 국제사회에 긴급히 요청한 상태다.

실낱 같은 희망을 현실로

콩고민주공화국 WFP사무소 근무

홍옥진 씨의 이야기

내가 맨 처음 인도지원과 개발분야(구호와 지원활동)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아프리카는 늘 내 마음이 가는 곳이었다. 대학원 졸업 후, UNICEF 세네갈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처음 아프리카를 만났고, 그때부터 다시 콩고에 오기까지 나는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지난 8월, WFP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WFP에서 일하게 되기 전에 내가 WFP에 대해 아는 것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는 유엔기구라는 정도뿐이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난민촌의 어려운 실상을 보게 되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삶에 대해 알아갈수록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과연 WFP가 하고 있는, 단순히 식량을 나눠 주는 일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WFP 콩고 사무소 가운데 긴급구호가 가장 크게 운영되고 있는 고마에서 3주를 보내게 되었다. 우리 정부에서 기여한 돈으로 구입한 식량들이 실린 WFP 트럭들이 고마에서 가장 오래된 Mugunga III 캠프로 들어오는 순간,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느꼈다. 우리가 WFP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식량을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다.

3주간의 출장을 마치고 다시 수도인 킌샤샤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고마에서 반군 M23이 정부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곳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식량을 주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만을 연일 이

어지는 대책회의에서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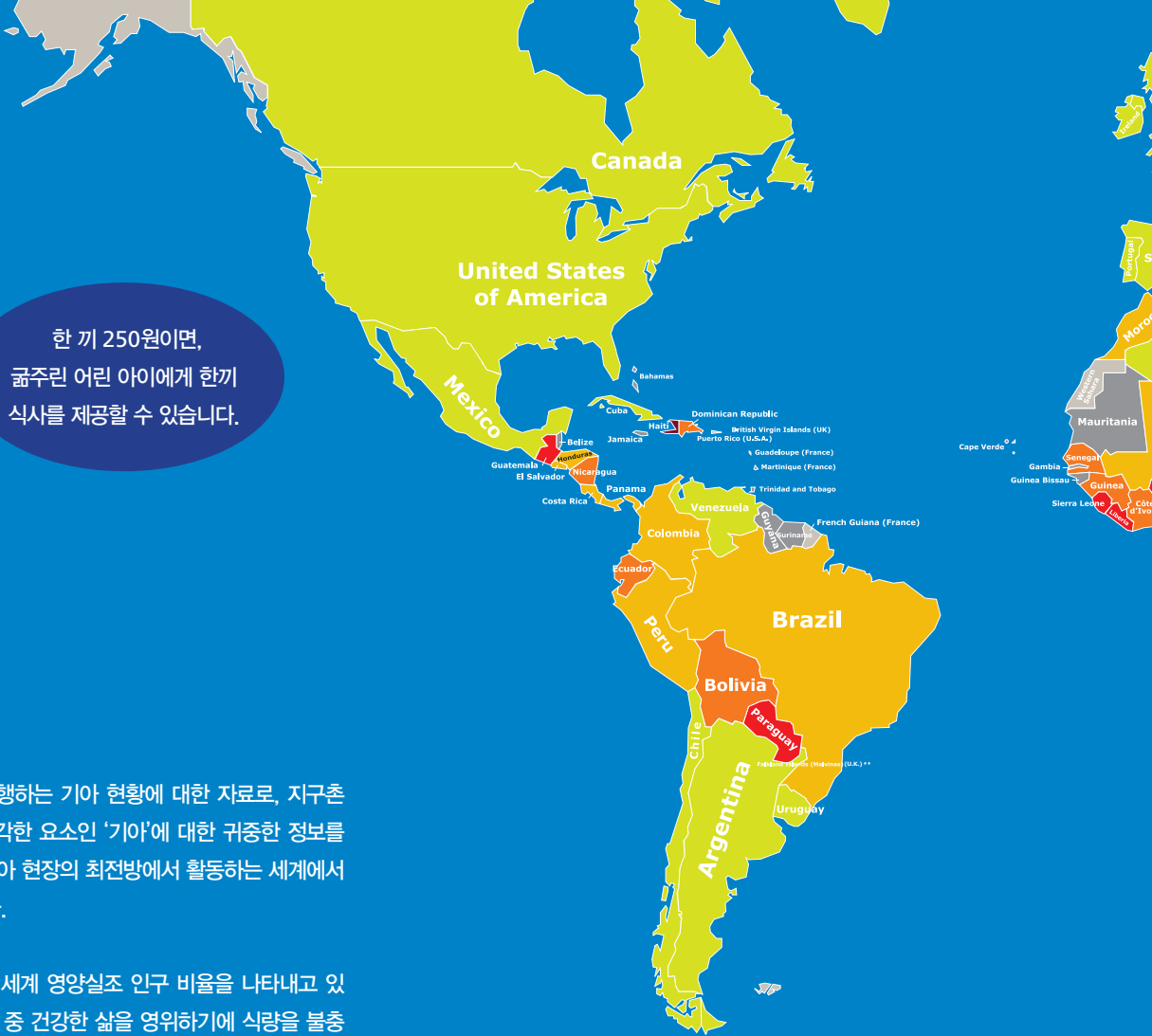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나의 직속상사인 WFP 콩고 Country Director, Martin이 얼마 전에 다른 UN 기구 대표들과 이 지역에 다녀왔다. 그곳에 다녀온 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Martin이 얘기했다. "옥진, 내가 오늘 고마에서 만난 사람들은 반짝이는 눈(sparkling eyes)을 잃었어.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식량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야. 그 반짝이는 눈을 찾아주는 일, 그게 WFP의 미션이야!" 그날 Martin의 그 한 마디는 내가 그 동안 갖고 있었던 많은 고민들,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던 혼란과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주었다.

고마 사태의 위기로 요즘 사무실은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써내는 바람에, 가끔은 지칠 때도 있다. 그때마다 Martin의 말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sparkling eyes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야. 고마에서 만난 아이들은 이미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의 눈빛을 갖고 있어. 이건 너무 슬픈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일해야 해".

그렇다. 아주 간단한 거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 누구나 갖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 WFP가 하는 일을 통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게 되고, 그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콩고 난민들의 반짝이는 눈을 찾아주는 일!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홍옥진씨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으며 외교부에서 근무하다, 2012년 7월부터 WFP 콩고 민주공화국 킌샤샤 사무소에서 프로그램 담당자(Program officer)로 일하고 있다.



한 끼 250원이면,
굶주린 어린 아이에게 한끼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아지도란?

기아지도는 매년 WFP가 발행하는 기아 현황에 대한 자료로, 지구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소인 '기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FP는 이런 기아 현장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이 지도는 2010-2012년도 세계 영양실조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 중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에 식량을 불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인구 비율을 추산한 값입니다.

기아지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WF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www.wfp.org/hunger/download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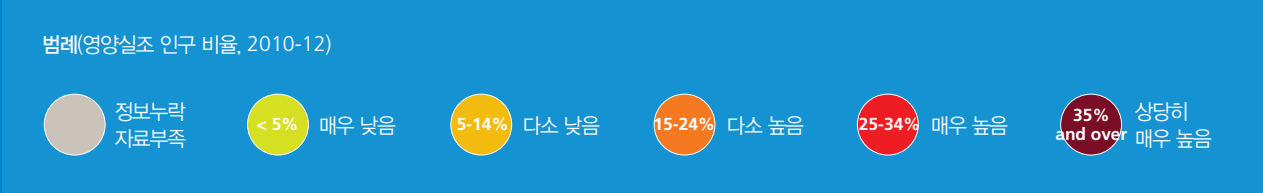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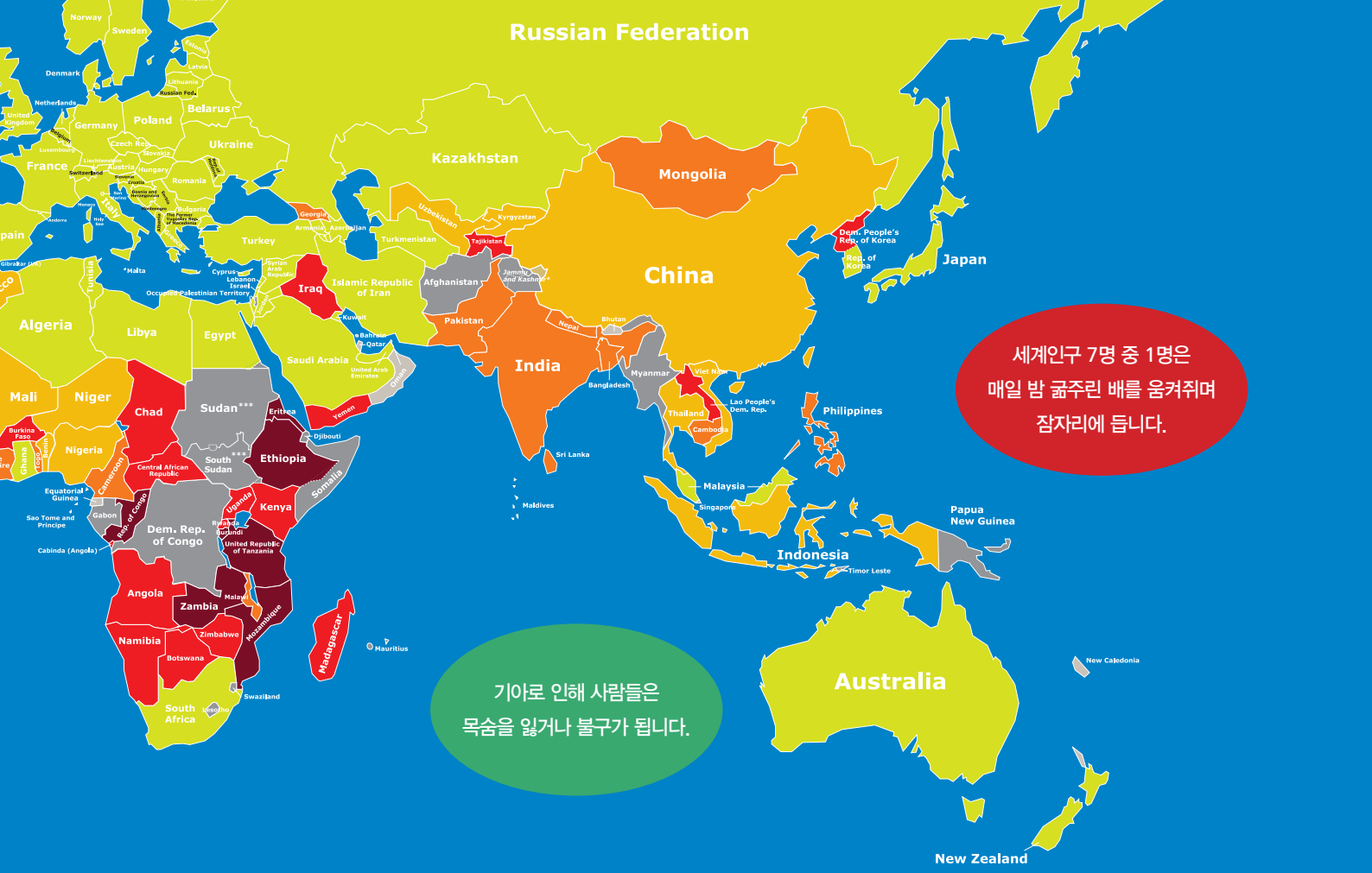
9억 2500 만 명
세계적 기아문제 중 만성 기아 인구 수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매년 만성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 수를 2010년 기준 9억 2500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2009년의 10억 2300만 명에서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기아 인구가 감소한 주된 원인은 2010년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2008년 중반 이후로 지속되어 온 식량가격 하락 덕분이었다.
-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인구 중 대다수는 개발도상국 주민이다. 그 중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만성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는 5억 7800만 명,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2억 3900만 명,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는 5300만 명, 동북 아프리카는 3700만 명, 선진국에서는 19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 세계인구 7명 당 1명(어른, 아이 포함)은 매일 밤 주린 배를 움켜잡은 채로 잠든다.
- 개발도상국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인구 비율은 1969-1971년 37%에서 2010년 16%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 개발도상국에서의 5세 이하 저체중인 아이들은 1990년 약 3명 당 1명에서, 2010년 약 4명 당 1명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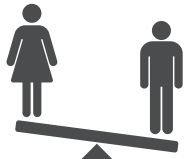


2,700,000 명
영양실조로 WFP로부터 특별영양식을 받는 2세 이하의 영아 수

- 개발과 관련된 해결책 중,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10개 방안 중 5개는 영양실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영양실조로 인한 일반인의 평생 수입손실은 10% 이상이고, 많은 국가들이 영양부족 문제로 GDP의 2-3%를 잃고 있다.
- WFP는 새롭게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받는 어린이,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들의 수를 빠른 속도로 늘리는 중이다. WFP는 특별 영양식을 제공받는 2세 이하 영아(영양부족이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나이)의 수를, 2008년 55,312명에서 2010년 약 2,700,000명으로 50배 가량 확대시켰다.



세계 10대 건강 위협 요인 **1** 위
기아 문제로 인한 인명피해



1억 5000만명으로 감소
여성들의 주도로 기아 해결 전망

- 기아문제(저체중)가 세계 10대 건강 위협 요인 중 1위를 기록했다.
- 매년 기아로 인해 죽는 인구 수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으로 죽는 인구를 합한 수보다 더 많다.
- 유니세프(UNICEF)가 최근 발표한 '아이와 모성영양'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5세 이하 영아 사망의 1/3은 영양 부족과 관련이 깊다. 영아 출산 후 첫 1000일이 영양 부족 현상을 해결할 중요한 시점이다.

-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남성처럼 토지, 기술, 재정지원, 교육,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농산물은 증가할 것이고 기아 인구는 1억 1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FAO의 2010-11년 식품, 농업 현황 보고서)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노동근로시간 중 60-80%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1972년 UNECA, 2009년 World Bank, FAO, IFAD)



WFP와 터키 적신월사, 터키 내 시리아인들에게 식량 전자카드 원조 시작

2012년 10월 13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터키 적신월사(IRC, 회교국의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터키에서 국제 보호를 받고 있는 시리아인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 전자카드 프로그램을 지난 10월, 시작했다.

식량 전자카드 프로그램은 맨 처음 5개의 캠프(길리스 주(州)에 하나, 하타이 주에 네 개), 2만 5천명의 시리아인들을 대상으로 시작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캠프에서도 취사 설비 사용과 상점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면 더 많은 수의 시리아인들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각 가구는 구성원 한 명당 매달 80리라(미화 45달러)씩 충전되어 있는 전자 식량카드를 받게 되고, 이것으로 기본적인 식단(한 사람당 하루에 적어도 2,100칼로리)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0만 명의 시리아인들이 현재 보호 대상으로 터키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숫자는 매일 늘고 있다. 터키에서 국제 보호 하에 있는 시리아인들의 대부분은 알레포(Aleppo)와 다른 북쪽 도시에서부터 오고 있다.

식량 전자카드 원조 프로그램은 시리아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을 피해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그리고 터키까지 피난 온 시리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구호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WFP는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오는 시리아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원조를 점점 늘리고 있으며, 작년 말까지는 46만 명의 취약 계층에게 식량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사헬 지역, 기아와의 사투 반복되는 가뭄과 식량위기

지난 2005년과 2010년, 니제르와 차드의 일부지역에서 가뭄이 발생했지만 올해의 식량위기는 사헬지역을 통과하며 한꺼번에 여러 나라들을 강타하였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의 식량가격은 2010년과 비교해 상당히 올랐고, 이는 취약계층들의 식량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곡물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량과 비교했을 때 모리타니아(46%감소), 차드(37%감소), 니제르(23%감소), 부르키나파소(14%감소) 순서로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많은 가구들이 2010년 식량 위기로부터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

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면 대부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자산을 팔거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지 않기도 하며, 도시로 이주하거나 식량을 찾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돌아다니게 된다.

WFP는 니제르에서 구호 규모를 확대한 11월 이후 약 150만 명을 후원하고 있고, 새로 시작된 응급 구호활동은 2세 이하의 영아들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다. 식량 부족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6월부터 9월까지 WFP는 약 260만 명에게 음식과 현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36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기아 비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WFP는 영양상태와 Food-for-Work 활동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하고 있다. 비행기를 이용한 공수 작전을 통해서서는 차드 동쪽에 약 200톤의 Plumpy'doz(영양실조 아동 전용상품)를 전달했다.

WFP는 말리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 2012말까지 130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했다. WFP는 현지 NGO와 협력하여 식량이 가장 부족한 지역인 말리 북쪽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리타니아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모리타니아는 현재 75%의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식량 가격은 상당히 올라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WFP는 긴급 구호 활동을 통해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들에게 현금 지원, 지정된 음식 배분, 영양 및 곡식 은행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사헬의 위기에 대응하여 WFP는 지역적인 응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5만 5천여 명 정도되는 말리 북부의 피난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이중 30만 명은 말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25만 5천여 명은 부르키나 파소, 니제르, 모리타니아에서 온 피난민들이다.

WFP, 식량 수혜자에서 식량 판매자가 된 우간다의 아츨리 농민들
 캄팔라(우간다 수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2년 전과
 지만 해도 WFP 식량원조에 의존하던 아츨리(Acholi) 소작농들의
 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이제는 자신들이 재배한 식량을
 구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WFP는 굴루(Gulu) 구(區)의 곡물 상인들과 154톤의 옥수수를 구
 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WFP가 아츨리 지역에서 첫 번
 째로 맺은 식량 구매 계약이다. 아츨리 지역은 저항군 폭동으로
 인해 상황이 안 좋았던 지난 몇 년 동안 WFP의 구제 원조에 매
 우 의존하던 곳이다.

WFP 우간다 사무소 소장 소리 우완(Sory Ouane)은 “이는 아주
 반가운 상태 전환이라고 여겨진다. WFP는 그 동안의 의존에서
 벗어나 양질의 곡물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된 아츨리 사람들을
 돕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완 소장은 상인들이 굴루 구 근처 6000톤 규모의 WFP창고를
 통해, 154톤의 곡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한 곡물은
 카라모자(Karamoja)지역의 WFP 활동에 쓰이게 된다.

WFP는 북 우간다에서 이재민의 이동이 끝나감에 따라, 긴급 원
 조에서 그 지역에 발생하는 기아와 가난의 내재적 원인 규명을
 돕는 것으로 접근법을 바꿨다.

WFP는 아츨리 지역의 간이식 식량 창고를 폐쇄하고 대신 현대
 적인 곡물 창고를 설치했다. 소작농 단체와 중규모 상인들은 그
 창고를 이용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곡물
 을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창고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WFP는 농민들의 생산성과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영농과 추
 수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훈련을 시키고 있다.

WFP의 농업과 시장 지원 계획은 P4P(Purchase for Progress-‘번영
 을 위한 구매’)로 알려진 계획을 포함하며 이는 2012년에 미국,
 독일 정부 및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고
 있다. 이 계획은 소작농 단체와 상인들이 WFP 뿐 아니라 상업적
 구매자들에게도 식량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
 해까지 북 우간다의 소작농 단체와 상인들은 WFP가 설립한 창
 고를 통한 거래로 인해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WFP는 국토건설 계획, 농업개발전략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s Development Strategy) 그리고 투자 계획과 긴밀히
 연결해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WFP는 소작농 단체와 상인들을
 지원코자 통상협업부와 농축어업부와 합동 협약을 맺었다.

여전히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2012년 11월 12일

로마/평양_유엔 기관들(FAO, WFP)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 식량들의 생산량이 2년 연속 증가했다고 추
 정했다. 그러나 약 280만 명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필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못해 심각한 영양 결핍을 겪고 있다.

WFP와 FAO에서 파견된 식량 안보 조사단은 주요 추수 기간인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북한에 있는 아홉 개의 주요 농작지를 모
 두 방문하였다.

식량 안보 조사단은 한정된 생산량의 채소, 만성화된 주요 단백
 질, 지방, 비타민 그리고 미량 영양소의 섭취 부족과 콩 생산량
 의 30%감소를 특히 우려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경작 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바람에
 콩 생산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는데 동원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옥수수 수확량 감소를 그나마 줄일 수 있었다.

2012년 주요 추수기와 2013년 초 수확량을 살펴보면 약 58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10%정도 증가했다. 조사단은 북한의
 주요 식량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50만 7천 톤의 곡물이 더
 수입돼야 한다고 예측했다. 북한 정부의 곡물 수입 목표인 30만
 톤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여전히 20만7천 톤의 식량이 부
 족하다. 이는 최근 몇 년간의 통계 중 가장 적은 수치이다.

FAO 경제학자이자 조사단의 리더인 Kisan Gunjal 씨는 북한은
 콩, 생선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생산하고, 1년에 이모
 작을 실시함으로써 더 다양한 곡물을 재배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텃밭을 통해 영양 상태를 더 향상 시키고, 농업 시스템을 개선함으
 로써 농부들이 생산한 쌀과, 옥수수, 밀을 시장에 바로 내다팔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WFP, 허리케인 샌디로 고통 받는 쿠바인 50만 명을 위해 구호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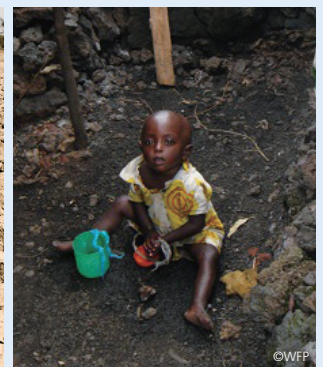
2012년 11월 7일

하바나_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허리케인 샌디로 고통 받고
 있는 쿠바 사람들을 신속하게 도와주기로 발표하였다.

구호활동은 쿠바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가장 심각한 피해지역인
 산티아고에 거주하는 약 50만 명에게 한 달 치 식량이 제공 된다.
 WFP 긴급구호 담당자 Wilam Vigil 씨는 “우리는 쿠바 당국 및
 UN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번 재난을 겪으며 집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특히 주요 곡물을 생산하는 수만 헥타르의 경작지역 피
 해가 걱정됩니다. 특히 산티아고 지역은 축산관련 시설들 또한
 심각하게 피해를 입어, 농산, 축산 시설의 생산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이곳 사람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허리케인 샌디는 지난 50년 동안 쿠바가 경험했던 가장 파괴적
 인 허리케인이다. 공식적인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골과 도시지역
 전역에 걸쳐 피해를 줬을 정도로 상당했다고 한다. 기존의 정
 부 자료에 따르면 2십 만가구들이 파손되었고 쿠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만 명 이상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 이
 허리케인은 인구 5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쿠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산티아고를 강타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기와
 물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해 노숙자로 만들었다.



01 유엔세계식량계획 서울대학교 내 입주 및 협약식 체결



서울대학교와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이하 WFP)은 사무소 유치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12년 12월 14일(금) 오후 3시 30분 서울대학교 CJ 인터내셔널관 2층에서 체결했다.

동 MOU 서명식은 변창구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과 Pedro Medrano Rojas(페드로 메드라노 로하스) WFP 대외협력 사무차장이 양측을 대표하여 서명했다.

이에 대해 변창구 교육부총장은 “세계 최대 인도주의 국제기구인 WFP의 한국사무소를 본교에 유치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금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가 WFP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의 국제기구에 대한 관심과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02 KDB대우증권 봉사단 콩고 민주공화국 방문, 봉사활동 펼쳐



KDB대우증권대표 김기범은 지난 12월 17일에서 21일까지 아프리카 DR콩고(콩고민주공화국)를 방문하여 WFP와 협력하여 세울 학교 건설 사업을 협의하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10여명의 대우증권 임직원이 참가한 이번 방문은 DR콩고의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방문해 ‘KDB대우증권 학교’ 헌판 전달과 함께 진행됐다. KDB대우증권의 기부금으로 건설된 학교는 7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루뎀바시(Lubumbashi) 지역에 건축 중이며, 학교가 완공되면 ‘KDB대우증권 학교’로 불리게 된다. 아울러 봉사단은 2011년 농기계를 기부했던 멘카오(Menkao) 마을과 몽가타(Mongata) 마을 및 바콩고(Bas Congo) 지역에 학용품도 전달했다.

KDB대우증권 김기범 사장은 “이번 학교기부로 학교시설이 부족해 교육기회마저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DR콩고의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KDB대우증권은 해외진출 강화전략에 따라 사회공헌활동도 글로벌화 한다는 의미에서 아프리카 구호사업과 같은 해외봉사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3 페드로 메드라노 대외협력 사무차장, 한국방문, 정부 및 민간파트너 면담

12월13일부터 15일까지 WFP페드로 메드라노 대외협력 사무차장, 비쇼 B. 파라줄리 공여국장, 모하메드 살레히 한국/일본관계 국장, 클라우디아 본 로엘 북한사무소장, 레나 사벨리 사무차장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페드로 메드라노 대외협력 사무차장을 비롯한 사절단은 외교부, 코이카, 통일부 및 민간협력파트너들과의 만남을 갖고 식량원조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파트너십을 다지고 협력 및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외교부와의 만남을 통해 기후변화 프로그램과 식량원조와의 관계, 식량 안보 문제에 관한 이슈를 논의 했고, 통일부와는 북한내 수유부 및 영유아에의 식량공급의 중요성, 식량 배급 모니터링 조건 및 향후 북한지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현미 후원자님의 후원이야기



제가 WFP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지만 봉사기간이 끝난 후에 제 도움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11월에 SBS희망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는 ‘나와 상관 없는 일’, ‘TV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존재가 같은 세계 안에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제가 잠시 알고 있었던 ‘도움’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더군요. 특히 장동건씨 영상 속에서 보았던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난민이 된 남매가 걱정도 되고 안쓰러웠습니다. 다리를 잃고 절뚝거리는 여동생과 생계수단인 나무가지를 꺾으며 나무 위로 조금 더 높게 올라가야 하는 오빠, 그리고 굵은 살 박힌 오빠의 손이 아직도 익혀지지 않습니다. 저의 작은 후원이 이 남매의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남매가 따뜻한 음식을 먹고 그 순간이라도 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용기 내서 후원을 신청했습니다. 막상 제가 후원자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음 나의 도움이 어디선가 소중하게 쓰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더군요. 저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몇 만원이 그들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의 작은 손길이 과연 도움이 될지 항상 의구심이 가졌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산 같은 우리의 후원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전해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쓰일 것입니다. 저의 작지만 큰 바람은 저처럼 도움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따뜻한 마음과 작은 정성을 표현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나눔을 실천하는데 도전하는 것입니다. 분명 작은 손길 이상의 기쁨과 따뜻함을 느끼실 테니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WFP한국사무소로 후원자님의 편지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 중 한 분의 사연을 뽑아 다음 호 뉴스레터에 실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mail: wfp.korea@wfp.org

「WFP 후원방법 안내」

<p>홈페이지</p> <p>ko.WFP.org</p> <p>접속 ▶ 후원하기 클릭</p>	<p>네이버 해피빈</p> <p>http://happylog.naver.com/wfp</p> <p>접속 ▶ 기부하기 클릭</p>	<p>전화</p> <p>02. 722. 9579</p> <p>전화 주시면 후원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p>	<p>*무통장입금(일시후원)</p> <p>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 제일은행)</p> <p>195-10-010956</p>
--	--	--	---

*일시 후원인 경우에는 상기 WFP후원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 시 성함과 생년월일을 같이 기입하신 후 WFP한국사무소(02-722-9579)에 송금내용을 전화 혹은 WFP 이메일(wfp.korea@wfp.org)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유엔세계식량계획(WFP)한국사무소는 2011년 9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해외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WFP에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WFP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방법 1</p> <p>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p> <p>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방법 2</p> <p>유엔세계식량계획 WFP 웹사이트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 로그인 ▶ MyPage ▶ 나의후원정보/기부금영수증 • 웹사이트: ko.WFP.org ▶ 우측 MyPage클릭 	<p>방법 3</p> <p>직접 우편 수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희 대표 메일(wfp.korea@wfp.org) 혹은 전화(02-722-9579)로 문의 주세요. • 문의 시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공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유엔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전세계 기아퇴치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엔세계식량계획 WFP는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복된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기아구제



250원이면,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0,000원이면,
한 가족이 한달 간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돼요.



1,000원이면,
네 끼를 먹을 수 있어요.



100,000원이면,
1천명이 긴급구호 시 비상식량을 받을 수 있어요.

기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주의 기구 WFP



후원문의
02. 722. 9579

이메일
wfp.korea@wfp.org

홈페이지
http://ko.wfp.org

후원계좌
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
195-10-010956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소, 이메일 주소를 WFP의 메일(wfp.korea@wfp.org)이나 전화(02-722-9579)를 통해 알려 주시면 WFP가 발행하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불확실, 저성장, 저금리시대
KDB대우증권의
투자방법

세금혜택 받고 자산을 키우기 위한 든든한 투자방법

▶ 장기국공채 ▶ 브라질채권 ▶ ELS/DLS(파생결합증권)

추천 DLS 기초자산 : 금, 은, 브렌트유, 미달러화가격, 미국하이일드ETF



고객지원센터 1588-3322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후 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전 계약권유문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펀드유형, 투자대상,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중도 환매 및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브라질 국가 디폴트 위험, 금리변동 위험, 환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으므로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최초 발행가격 대비 초과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중도 환매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 DLS는 세금 혜택과 무관합니다.